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겸 부총참모장 유성철 중장.



유성철 장군은 1917년 10월에 소련 원동변강 연해주 보트시예즈구역 빈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공화국 타슈켄트시 니사리 사범대학에서 초등교원 강습을 필하고 안기울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단기간 교육사업에 종사하였다.

1941년부터 1943까지 모스크바에서 소련군 경찰학교를 필하고, 하바롭스크 근방 왜쵸크홀에 와서 안주에서 들어온 한인 유격대원들과 함께 원동 제1 전선산하 경찰국에 속한 제 88 특별 경찰여단에 속하여 경찰일무를 수행하였다. 그 공에서 유선생은 중공의 유명한 유격활동가 즉보중 동무가 지휘하는 여단내 제 1 대대장 김일성 동무 아래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제 1 대대는 한인 유격대원들로 편성될 때 대령인 하 유선생은 이대대에 편입될 것을 대단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1943년 봄에 김일성 동무의 지도하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생애의 옥행적인 한 획이었다. 유성철 선생은 김일성 동무와 함께 88 여단에 속하여 1945년 조선해방기념을 왜쵸크에서 맞이하였다.

이상과같이 88여단 제1대대 성원들은 대대장 이하 전체가 조선해방전쟁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88여단에 속하여 복무하던 한인 군부자들은 1945년 9월 19일 (팔월 추석날이었다)에 소련군 운무함은하군 원산항에 평화롭게 입항하였다. 그후 유성철 선생은 계속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작전 국장으로 복무하였다. 때문에 그는 6.25 전쟁 준비로 붙어, 전쟁개시, 전쟁진행과정에 계속참가하였다. 때문에 유성철 선생은 비참한 동족 상잔의 추락을 비체 적리게 느끼고 있다. 그는 조선인민군 국장이었으려, 중공 운동에서 진실이 일어났으나 김일성의 사상검토에 걸려 고생하다가 소련에 추방되어 하우켄호 시에서 역생을 지내다가 1995년 1월 10일 78세를 일기로 하고 세상을 떠났다.

유성철 선생의 회생기서 피바다의 비화」를 그대를 아래에 기록한다.

1. 기억을 더듬어 :

나의 회생기의 일편이 한국신문들에 발표한바 있는데 그 누구의 잘못으로 전부 사실이 왜곡되고 정확치 않게 이야기됐기 때문에 《고려일보》지를 통하여 이상 모든것을 시정하며 사실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역사는 위조되지 말아야 한다. 위조된 역사는 후대들에 의하여 밝혀지기 마련이며 그의 위조자는 역사의 정당한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한국의 독자들이 《고려일보》지에 발표되고 있는 나의 회생기를 읽고 모든것을 양해하리라고 믿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반세기 지난 오늘날에도 나의 머리속엔 그날이 남아 있다.

바로 소위 전쟁이 일어나던 그때 - 1941년 6월 21일 그날이!
나는 원동 연해주의 태생이다. 이곳에서 소학과 농민청년 학교를 졸업했다. 다음에는 해삼사범대학내 노동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병으로 인해 중퇴하게 되었다.

중퇴후 해삼시 《선봉》신문사 출판사에 취직하여 처음에는 채자직공으로 다음에는 작판원으로 일하였다.

1937년 강제이주때 신문사와 함께 카자흐스탄 크을-오르다시로 이주하였다. 《선봉》신문이 《레닌기치》로 되었을 때에도 나는 계속 작판원으로 일하다가 공부를 계속할 희망을 품고 1939년 여름에 타슈켄트로 오게 되었다.

중학교 졸업증이 없어서 대학에는 입학하지 못하였다. 때마침 타슈켄트 니사비 명칭 사범대학내 교원강습이 열렸다. 강습소에 문건을 제출하고 시험에 합격되어 교원강습을 받게 되었다.

뜻하지 않았던 불의의 사변! 대학현관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 집회에서 독일파쇼군이 소련에 침공했다는 간단한 소식을 전했다.

전쟁! 전쟁! 이처럼 놀라운 비보에 정한 대학생들은 독일파쇼군의 불의의 침공에 분개했으며 불안에 잠겨했다. 많은 녀대학생들은 비운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리정서에는 불 강습을 졸업했다는 문구가 없다. 그저 대학 1학년을 졸업했다고 써여있는 뿐이다. 그후 양심가책도 없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상기 강습소를 졸업하게 되면 민족학교 10년제 혹은 초급중학교의 로어교원으로 교편을 잡아야 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였다. 로어를 완전히 소유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로어를 가르칠만 말인가? 그래서 강습소는 졸업하였으나 로어교원이 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이 시기에 타슈켄트주 양기을 《레닌》 플호즈 중학교 교장으로서는 나의 성훈 형님이 있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한 나머지 나는 그 중학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 그곳에 파견되어 나는 얼마동안 교무부 사임을 방조하다가 시조사동원부의 호출장을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

거리인들을 전선에 보내지 않았는데 이 처럼 전선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1941년 9월이었다. 전쟁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모스크바까지 차를 타고 가는 데 평시에는 3주야면 됐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수도에 도착하자 우리를 어떤 사복한 사람이 영접했다. 그날조차 폭격이 혹심했다. 고사포 사격소리도 더 혹심한듯 보였다. 나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체험한 전쟁의 소음이었다

수도의 단층, 고층건물 우리창들은 승표종이 덩기로 떨어졌었고 검은천으로 문창들이 가리워져서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거리들은 철강 외통치로 부서진 반양크 장애물로 가득차 있었다.

우리 일행을 실은 소형버스는 단층에 그 어떤 지선을 따라 수렁속으로 달렸다. 바로 버스가 멈추자 대문이 열린곳이 경찰학교였다. 이렇게 되어 학생이 된 나는 낮에는 학과에 열심히 저녁이 되면 방독면자를 메고 손에는 긴 잠게를 쥐고 수직을 서야 했다. 독일 파쇼 비행기가 소이탄을 던지게 되면 그 소이탄의 불을 꺼야 했다. 수도 주변에 목조건물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 파쇼들은 소이탄을 많이 이용했다.

세월은 흘러 어느새 1942년 12월이 왔다. 불은 조에는 파쇼독일군을 수도에서 멀리 내 쫓고 계속 추적했다.

경찰학교를 졸업한 우리들은 일본을 대상으로 원동전선에 파견되었다. 우리를 중에는 소독 전선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도 있었다. 1943년 봄에 우리들중 일부는 조선 조선 국내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헌병에 의해 불잡했거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였거나 하였고 일부는 죽령선을 통과 못하게 되었다

그후 나는 만주에서 일본 침략군을 반대하는 소련군 경찰에 복무하였다. 경찰인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어느날

이였다. - 하이메모 이데스까? - 하고 나를 찾아 왔
었다 이는 소련 원동군구 정치부 정치기관이었는데
나는 2대 그를-하이메모 이데스까- 라고 불렀다.

나는 언지나 그가 묻는 말엔 《도조》라고 대답하는데
습관 되어 오늘도 그렇게 대답하고 그를 맞았다. 그는
유격대원들을 모아 부대를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해주
었다. 나는 다음날 페르실로브시를 떠나 기차로 하바를
스크시에 도착하였다.

왜즈크촌

하바를스크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쯤 달리노라면
아물강역에 나나이족들이 거주하는 왜즈파라고 불리우는
촌이 나타난다. 바로 여기가 《하이메모 이데스까》가
이야기 해주던 유격대원들이 모이는 제 2 지점이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때는 벌써 부대가 편성된 때다
이 부대는 제 88 특별 지역 여단이라고 불렀는데 여단
에는 4개의 보병대대, 통신대대, 경리중대와 함께.
여단 후방, 조의소가 있었다. 중어 강습소와 안전북도
활기를 띄웠다. 여단장으로는 주보중 대좌였다. 이는
동양에서 제 2 연합 항일연군을 영솔하면서 명성을
떨친 지명한 유격 활동가였다.

여단 참모장으로는 시킨스끼 중좌, 여단 정치 부장으로는
세호진 소좌 등이였다.

제 1 대대는 고려인 유격대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
되었었다. 다시 말하여 김성주와 함께 활동하던 유격
대원들이였다. 대대장으로는 김 일성이라는 대위였다.

대대에는 두개 중대, 경리소대로 편성 되었고 제 1 중대
는 유격대원들로 편성 되였다. 이 중대에는 중족동무들도
있었다.

중대장으로는 최용진 대위였다. 그는 유격대원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북무한 그는 아버지가 연분군병에 투항했다하여 충실한 최용진. 그의 성격은 이처럼 포악하였다. 혹독하고 무식한 편이지만 충명하였다.

제 2 중대는 다 민족 소련 전사들로 구성되었다 중대장으로는 뵤르흐와야예브 중위였다.

제 2 중대는 2개 소대로 편성되었는데 제 1 소대장으로는 박길남 중위였고 제 2 소대장으로는 나나이족 벨의란 소위였다. 정리소대에는 훈련을 할수 없는 부상병들과 병자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소대장으로는 최현 상위였다.

제 2, 3 대대는 다수 중국인들과 함께 활동하던 고려인 뵤르흐지산들로 구성되었다

제 4 대대는 제 1 대대와 대응한 대대였다.

강신태 (강진) 와 함께 활동하던 대원들이었다.

대대장으로는 강신태였다.

이들은 전후 초기에는 북업을 하였고 여단 편성이 끝난 1942년 여름부터는 소련군의 훈련 강령에 의하여 정규의 훈련을 받았다. 북장도 완전히 소련군의 처림이었다. 전술은 여단 범위내에서 소대, 중대, 대대, 훈련이 기본이었다. 권구에서 지도하는 여단장 학습도 한두번 진행되었다.

정치 학습은 주로 소련 양사 연구였는데 때에 따라 현행 정치 학습도 있었다

여름철이면 한 장풍에 한개 분대씩 드는 천막에서 야영 생활을 하였다.

학습외에도 아물강에서 수영 훈련도 있었고 연어철이면 연어잡이도 하여 여단의 부식물을 보장하기도 했다

거울처럼 전술, 사적훈련외에 쉼때라기와. 동기야영지로 10일간씩. 출두하기도 했다. 동기야영에서는 일부전사들이 밤을 알근 사설로 영사지 이동했다.

이 기사를 쓰는 정찰병이란 필자도 인제는 군인생활을 하게되어 제1대대 중역원으로 배치되었다.

유격대원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진실로 애국자들이다. 이들은 알제를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운 혁명 투사들이다.

만주에서 일본수비대를 습격하여 자기들의 대오를 무장시켰고 철도를 습격하여 알근의 수송선을 마비시켰다.

조만 국경을 넘나들면서, 관동군의 숙영지를 습격하여 알근에 손실과 불안을 준 조선의 애국 열사들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애국자 - 공산주의자들이 조직 전개한 항일 유격 운동이었다

이 항일 유격운동은 연길현에서 시작되었는데. 벌써 1932년에는 봉에 양세봉, 김성주, 리홍광, 김책, 최석천, 등 부대들이 나타나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만에서는 최현, 강신태, 안길 등이 지휘하는 유격소부대들이 조직되어 알근과 장개석 군벌에 타격을 계속하였다.

북만에서는 김책, 최석천(최용건)이 지휘하는 유격대원들이 알근과 장개석 군벌들에게 계속 손실을 가하였다. 방석현에서는 조선혁명가 - 공산주의자 리홍광이 《바위》라고 칭한 유격부대를 조직하여 군벌들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1934년 가을과 겨울에 리홍광이 직접 영솔한 유격대원들은 압록강의 상강을 이용하여

조선 지역에 진출, 만제경찰서를 습격하여 저들에게서
 조획한 무기로 유격대를 무장시켰다. 동시에 이들은 국경
 지대의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군수물자를 압수하는 등 용감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9월 18일 사변》이후 반일투쟁의 지명한 조직자중
 한사람이며 공천원인 리공채는 중국인 유격대에 입대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그의 개체의 용감성과
 군사적 기교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순조선인들로 구성된
 유격부대를 조직할것을 위임하였다. 그후 그는 그 위임을
 실천하면서 조선인 유격부대를 조직하여 일군과 영웅무쌍
 하게 싸우다가. 영웅담기 전사하였다.

조선의 애국자 - 공천원 박길송은 반일투쟁의 현명한 조
 정을 걸었다. 그는 일군과 싸우다가 포위망에 걸려 체포됐다

그후 그는 투옥됐다가 탈옥한 후에도 반일투쟁을 계속한
 투사였다. 그는 동북 제군 제 6 독립대대 정치위원으로 공작했다

이성 유격부대를 중에서도 가장 큰 유격대는 남만 조선
 인민혁명군이었다. 이 부대는 반일 투쟁의 지명한 조직자
 이며 애국자인 양세룡이 영솔하였다.

그는 중공당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활동한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그후 일군과의 가혹한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1937년 여름에는 김일성이 지휘하는 유격대가 압록강
 을 건너 보천보의 파출소를 습격한 대담한 전투를 해냈다

만일의 경유를 우려하여 30명은 보천보의 반대편
 강안에 배치하고 자기는 12명의 유격대원을 인솔하여
 예목을 타고 보천보를 향하였다.

습격하고 보니 이곳에는 알군이 없고 다만 경찰 몇명 뿐
 이었다, 경찰 2명을 죽이고 다섯자루의 아라사끼 보
 총과 양식을 로획하여 가지고 새벽이 되자 다시 예목을
 타고 압록강을 무사히 건넜다, 이제는 산으로 올라야
 발견되지 않고 행군할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대장은
 «산으로 올라가면 얼마가지도 못하고 발견될수 있소, 우
 리는 신작로를 따라 일반군가를 부르며 피하는 것이 상
 책이요» 하고 그대로 행동했다.

알군은 처음에는 속연에 빠졌으나 산지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기에 행군하는 유격대의 뒤를 따라 추적했다

유격대는 피할수 없어서 부대를 산재시켜 조우전을 하
 게 되었다, 이 조우전에서 김일성은 영웅담을 전사하
 였고 10 여명의 전사들도 잃었다, 남은 40 여명은
 다시 산속으로 피하여 생명을 구할수가 있었다.

반알 운동이 확대되자 알제는 유격 운동을 전압하는
 한편 유격대의 내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일반 군벌의
 간첩 단체인 민생안까지 조작해 냈던 것이다.

김성주의 아우 김철주는 알군의 포위망에 들어
 포로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하여 성주는 한동안 정신
 적 타격을 받은 사실도 있다, 김성주에게는 이사실이
 몹시 수치스러운 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성주는
 유격 활동은 하였으나 큰 공을 세운 일은 없었다

김일성의 전사후 성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연 합

중공당의 유일전선 강령에 기초하여 이때까지 분산되어 자립적으로 활동하던 유격대들이 합류하기 시작, 처음에는 김책, 최석천, 최현, 최윤의 유격대들이 연합하여 내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명칭을가지고 2세의 김성주 - 김일성이 영솔하게 되었다.

양세룡이 전사한후 남만에서 활동하던 남만혁명군과 합의에 도달하여 합류한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칭, 이상 유격부대들이 항일투쟁에서 일군과 장개석 군벌들에 막대한 손실을 줄여 주므로 하여 항일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것만은 논박할수 없는 사실이다.

중공에 대한 일제의 새로운 공세가 행해지자 중공당은 8로군과 신사군과의 보다 긴밀한 협동작전을 위해 일체 유격사단들을 3개의 연군으로 개편하였다.

제 1로군에는 제 1, 2 사단을 포함하여 양정우의 지도하에 남만에서 활동했다. 제 2로군은 4, 5, 7, 8사를 포함하여 주보중의 영솔하에 동만에서 활동하였다

제 3로군은 제 3, 6, 9, 11사를 포함하여 리조린의 지휘하에 북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일제의 침략이 심하여 갈수록 조-중 인민의 우호관계는 더욱 굳어졌다. 1938년 무한이 위험한 사태에 빠지자 수많은 조선인 유격대원들은 무한 방위에 지원하여 나섰다. 무한이 일군에 의하여 항략된후 조선인 지원병들은 북산 배치되었다.

이들중 다수 부대들은 중공당의 관하에 있는 연안에 이동되어 8로군과 신사군의 전투부대들에 편입되었다

장개석의 국민당 반동파벌은 혁명여당을 말살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대병력을 동원하여 1931-1933년에 중국 홍군을 반대하는 5차에 걸친 공격을 감행했으나 중국 홍군은 반동군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1934년에는 부득이 남부지방을 떠나 1935년 시월까지 2만 5천리 장정을 성과있게 수행했다.

국경을 넘어

1939-1940년도의 국제정세는 대단히 복잡하고도 긴장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라의 민주역량을 말살하기 시작했다. 동방에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장차 소련과의 대전을 꿈꾸면서 만주에서의 자기의 군력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대동아번영》이라는 비명하에 대동아 전쟁을 개시하였다.

1940년에는 《베를린-로마-도쿄》 삼각군사동맹이 맺어졌다.

일본군벌은 만주를 자기의 《강력한 군사·후방》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광범한 범위에서 유격대도벌 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도벌대사령부를 설치하고 수십만 대군을 집합하여 유격대들에 대한 《봉쇄》, 《포위작전》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에 중국 홍군은 2만 5천리 장정을 하게 되었고 유격부대들은 유격기지를 상실하게 되자 양식을 구할수

없게 되었고 인민들과의 접촉이 불가능하여 유격대의 힘도 점차 쇠약해졌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이제는 만주에서 유격활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가 유격대들로 하여금 소련국경을 넘게 했던 것이다

1939-1940년 사이 50명 가량 많은 유격대원들이 일군에 쫓겨 월경하였다.

처음에는 여성들과 환자, 부상병들을 월경시켰다. 다음으로는 지도자들이 국경을 넘었다.

먼저 이들은 해삼 감옥에 있었고 다음에는 오계안스크 역촌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이들은 원동전선군 사령부 정찰에 복무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88 여단 조직에 망라된 것이다

1941년 김일성이 정찰 임무를 맡고 만주에서 공작한 일도 있었다.

박성철도 정찰 임무를 맡고 만주로 파견된 바 있었는데 불에 파견된 사람이 가을에야 돌아왔었는데 게다가 허위 보고한 것이 탄로되자 무거운 추궁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려고 까지 시도했었다. 아편을 먹고 자살하려는 것을 알게 된 여단준의소좌 리동화가 그를 겨우 살려 주었다.

《암파》

금강산 전설 중 《암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김일성은 그 전설까지 외곡 위조하고 있다.

아래에 《암파》에 대해 사실 그대로 전하기로 하자 ; 알뜰이 폐망하기 전해 늦가을에 있던 사실이다 금강산은 아직도 흰눈에 덮혀 개골산으로서의 기이하고 거창한 모습을 한창 자랑하고 있을 때였다.

밤은 피그나 깊어서 사람들은 하루의 고된로동의 피곤을 풀려고 잠자리에 드러누워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휘영청 밝게 떠있는 보름달이 눈에 덮여해금강 천지에 은은한 정빛을 뿌리고 있었다.

즉성스레 끌던 파랑도 멎고 갈매기들은 보금자리를 찾아 잠들었는지 조용하였다. 때때로 싸-하는 파도 소리가 간격을 두고 잠든 바다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며 들러를 뺐어냈다.

그런데 이밤 이고요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잠자기 태풍이 일어 떠장같은 구름을 몰아오더니 《까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울렸다. 청천병력이라더니 번동설한에 화성이 울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 나갔다.

전에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런 천변이 생기면 인간세계에서도 변장치 않은 말이 편버진다고들 믿고 있었다.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또 번쩍하고 강한 선광이 피치더니 다시금 《파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울렸다. 선광은 삼일포의 금강문 쪽으로 쏘아갔다. 뒤이어 바위가 주는 웅장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윽고 아무일도 없은듯 주위는 다시금 고요한 정적에 깃들었다. 철철흑야의 온정령에 불어오는 바람만이 살을 베이는듯 맵찔다.

《참 이상한 일이야! 삼일포쪽에 무슨 변고가 생긴게로군》 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하였다.

그렇다고 하며 이 밤 강후위에 그곳을 가볼수도 없는 일이였다. 날씨는 맑고 갑자기 불어왔던 설한 풍도 잦고해서 겨울날씨치고는 한결 따사로웠다.

사람들은 모두가 간밤에 번개치던 삼일포 쪽으로 뛰쳐갔다. 가보니 금강문의 뒤편에 있던 집채같은 바위가 갈라져 밑에 굴러나와 있는것이 아닌가.

《이 바위가 썩락을 맞았는가 부지?!》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고 얼버져 나간 바위를 두루살펴 보았다. 옛날 양반들이 이곳에 놀러왔다가 새겨놓은 이름들이 깨어져 있는것 밖에는 아무런 이상한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 옆편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 여기에 처음보는 글자가 새겨져 있소, 누구 글이라는 사람이 없소? 사람들은 그 말에 «문» 앞으로 몰려갔다

분명 이것은 새로 새겨진 글자 같했다

- 무엇이라고 써 있소? - 한 사람이 성급하게 물었으나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발돋움을 하면서 목을 길게 빼들고 신기한 눈길로 새겨진 글자를 보기만 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조화라고 하면서 한겨울에 화성 병력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번개친 곳에 글자가 나타나 있었다는 것도 무엇인가 상상치 않은 일이 미구에 생겨날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 그렇다면 저 글자 뜻을 알아야 할 게 아니오!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그 글이 불길한 징조를 알려 주었는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에 한가닥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인지?! 하긴 불길한 징조라 하여도 오늘날의 그들의 처지로서는 두려울 것 없었다

«지금보다 더 못살게 뭐가 있어!» 하며 오히려 배심 있게 서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살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약기 고를 떠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자기생각대로 안타까운 심정을 달래는데 한 노인이 정중한 어조로 - 살길이 열린다는 뜻인가 봐 - 무엇이라고 썼기에 노인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우? -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한 늙은이가 빨리 속시원이 말해달라 재촉했다 - «안파»라고 썼소 -

어두운 《암》자에 깨어질 《파》자를 썼으니 이는 곧
어둠이 깨지고 광명이 온다는 뜻으로 됨.

노인의 이말에 주위는 들을 뻔한듯 조용해졌다.

《암파》라 어둠이 깨지고 광명이 온다... 사람들은 마음
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노인은 계속해서 - 이것은 태몽의
흥치가 굉장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뜻일수도 있소
하늘이 알려주는 상서로운 예언이니 왜놈이 망하는게
틀림이 없는게요! 노인은 확신을 품고 신중히 말했다

사람들은 노인의 이 증자풀이를 듣고 매우 흥분되어 어떤
사람은 환성을 올리다가 허연 어떤 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다. 《암파》에 대한 이야기는 날개가 돋힌 듯
삼시간에 온 감산에 퍼졌다

뒤늦게 이 사설을 알게 된 일제 경찰은 금기야
경관들을 파견하여 《암파》 증자를 깎아버리고 사람
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느라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

그야말로 이 전설같은 이야기 대로 삼일포 사람
들은 온나라 인민들과 함께 팔원애 자유의 불을 맞
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설을 가지고 그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흥미를 안고 이곳에 찾아
왔던 것이라며 왜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조국 광복에
대한 끝이없는 열망으로 하여 《암파》 바위 주위를
몇번이고 거닐고 또 거닐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8 월의 봄

유럽의 군사작전에서 소련군은 어려운 전투에서 이미 히틀러 파쇼군을 격멸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소련의 동맹국들은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하는 전쟁에 소련이 참가함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문제가 테헤란 삼국 강국 수뇌자들인 이. 스탈린, 프랑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의 1943년 상봉시 논의되었다. 허나 1945년 삼국 강국의 수뇌자들의 크림 《약다》 회담에서 최종결론을 보게 됐던 것이다

소련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 처럼 이번에도 자기의 약속에 충실했다. 1945년 8월 9일에 시작된 원동에서의 대일작전은 광범위에서 승전하였다. 그의 일부로 되는 조선 해방 작전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36년간의 일제의 억압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도 자유와 해방의 봄을 맞게 됐다. 그시기 원동전선 사령관이었던 소련 원수 아, 와실렙스키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의 해방자로, 벗으로, 동맹자로 조선에 들어섰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낸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다. 소련군 부대가 입성하는 도시와 농촌들에서 진행되는 주민들의 친선과 진실한 감사의 정을 표시하는 대중 시위 운동이 이에 대한 증거로 되었다.》고 썼다

귀국 동포

9월 중순으로 기억된다. 여단 해체 명령이 내려 모두가 투장을 바꿨다. 3년이란 세월을 살아오던 왜즈크를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기쁘기 한량없었고 다른 편으로는 어찌서인지 섭섭함을 금할수 없었다.

왜즈크야 잘 있거라! 기회만 되면 너를 다시 찾으리! 이렇게 이곳과 작별하면서 나는 우울한 목소리로 소리치듯 외쳤다.

이곳을 떠난 우리 일행은 중국 목단강에 자동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이곳 조선사람들은 소련 군복을 입은 동포들을 만나보면서 기분이 몹시 흥분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목단강시의 조선사람들은 소를 잡아놓고 3일간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진정으로 환영해 주었다. 그때의 그들이 지금도 있는지...? 그 감격을 잃고 실망에 잠기거나 앓았는지!

목단강 사람들이여, 감사합니다

처음 계획은 안동과 신의주를 거쳐 평양까지 기차로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후 알고보니 압록강 철교가 파괴되어 일행은 다시 차동차로해삼항에 도착, 이곳에서 우리는 군운송선 《백가초브》호를 타고 9월 19일 (8월 추석날) 원산항에 《상륙》했다. 그날이자 바로 8월 추석날이었던 것이다

원산시 인민 위원 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8월 추석 행사가 한창인 시 공출운동장으로 가게 앞서 김일성은 우리를 모아 놓고 - 동무들! 오늘은 추석날인데 조심하시오. 술도 마시지 말고 방탕질도 하지 마시오. 혹시 사람들이 김일성을 보았는가 하면 우리는 선발대가 되어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는 그분은 뒤 이어나올게라고 말하시오. 연세를 물으면 보지 못했기에 모른다고 하라는 당부를 했다. 그리고 그는 수직병을 지명하고 우리를 해산시켰다. 이것이 조국 땅에서 한 김일성의 첫 교시였다. 헤어져 나와 밖에서 최용진이 «처지바당»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으나 그때 나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에 대하여 의심조차 하지 않았었다.

이번 사상 감도를 통하여 생각하게 된바, 최용진은 김의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의 김일성은 벌써 40이 훨씬 넘은 용장이었으며 아주 영리하고 현명한 분이었고 전투에서는 용감무쌍하였다.

때문에 이 김일성은 본래 김일성의 이름을 바꿔 가진 가짜 김일성이란 말 뜻이었다.

어쨌든간에 8월 추석은 원산에서 흥분된 기분으로 진행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중국과 북조선 몇 월남에서는 인민 혁명의 승리를 위한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김일성은 총한방 쏘지 않고 조선이 해방된 후 북조선에

거국하였다

거국후 그의 행동을 살펴 보기로 하자.

1973년판 《정치사전》 제 47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무장 투쟁의 최후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의 준비를 위하여 모든 정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혁명군의 소부대 활동이 적극화 되고 일반병종과 특수병종을 포함한 군정 훈련이 전반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작전계획 수립과 령량 편성 등 전투준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한편 인민들의 반일무장 투쟁이 세차게 진행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과 합세하기 위한 전인민적 봉기의 반일투쟁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었다. 1945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의 성전에 총동원 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셨다》

이 얼마나 비열하고 파멸치한 날조인가? 북조선 해방은 다만 소련군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남조선은 미군에 의해서 해방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 시기에 김일성은 88여단 대대장으로 군정 훈련을 받지 않았던가? 이런자가 그 시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어떻게 전투명령을 내릴수 있었다 말인가? 또 어느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하기 위한 전인민적 봉기의 반일투쟁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었다는 말인가?

무궁화

우선 해방된 북조선 지도자를 선발해야 했다
 꽃중에도 꽃은 무궁화라 했거든 이런 꽃을 자유의 불
 - 8월에 선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것이다
 제 25 군 사령부의 북조선지도자 선발에 관한 명단에는
 조만식, 박헌영, 김일성 등 셋이 올라 있었다.

그 당시 민족당수였던 조만식은 소부르조아 계층의
 인텔리였다 평남 강서군의 토지는 그의 소유였다고 한다.
 대지주였다. 평남도 경비사령부에 위고르까란 중좌
 가 있었는데 그이기도 경비사령부의 정치부사령이었다.

필자는 그 당시 총역원으로 그와 함께 그곳에 갔다.
 조만식과의 세차례 걸치는 담화가 있었는데 그는
 소련 사령부와 협동을 절대 거절. 《나는 모스
 크와 상생 회담의 전략 동치안을 완성할수 없다》고 그
 는 주장하였다. 이렇게 그와의 담화는 끝나버렸다.

박헌영은 서울주재 소련영사 삼신이 우리에게 소개
 해 주었다. 그의 평가에 의하면 박헌영은 국제공산당과
 의 관계하에서 서울서 오래동안 지하공작을 하여 인민들
 속에서 신망있는 지도자였다는 것. 만일 그를 북조선지도자
 로 선발한다면 그는 능히 그직무를 감당할수 있는 인물
 이라는 것을 상부에 제기했다고 말하였다.

한편 소련군 제 25 군단의 스텝코브 대장을 위시하여
 많은 장령들은 김일성을 지지하여 나섰다.

김일성은 유격 운동에도 참가하였고 다년간 소련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또 소련군 대위였기에 소련에 충실할 것이며, 하는 의견이 지도자로 선출할 제기가 스탈린에게 전달되었다 한다. 결국 장군들이 승리하여 김일성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 환영

지도자의 선발에 많은 시일이 걸렸다. 김일성이 앞으로의 조선의 지도자로 될데 대한 스탈린의 분별이 있은후 평양에서는 김일성의 개선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과 그 주변시민들은 평양 공술운동장에서 김일성의 개선을 환영하였다.

레베제브 소장의 개회사가 있은후 김일성의 개선 연설이 있었다. 그의 연설문은 소련군 25군단 정치부에서 작성되었고 그 연설문을 시인 전동혁이 조선어로 번역하였다. 김일성은 이렇게 준비된 연설문을 낭독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사실은 뜻깊은 이 집회, 평양시민들과 주변의 백성들까지 모여들어 운동장은 대만원을 이루었다. 그 얼마나 바라고 기대하던 날이었기에, 그 얼마나 위훈에 벅나는 김일성을 보고자 하던 시각이었기에!

오후 1시! 김일성이 연단에 나오자 그철쭉 모르는 《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마에 나뭇기는 짙다란 머리칼, 가느다란 희늘과 붉은줄이 섞인 넥타이, 조끼를 걸한 검은색의 양복, 검은구두, 왼쪽 가슴에서 빛나는 전투적기 훈장!

정말 33세의 청년이였다. 그때만 해도 살이 지지 않아서 몸은 약하였고 거적눈에 야심이 가득찬듯 보이였다. 처음에는《만세》 소리가 드높더니 수십만 대중이 차츰 헤어지기 시작했다 《저건 가짜 김일성》이라거나 《노스개의 앞잡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군중속에서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건 그럴수 밖에!

조선사람들이 예로부터 들어왔던 명성 높은 진짜 김일성은 그때 벌써 50성상이 된 로장군이시였다.

인민들은 어디에서 알수 있었겠는가? 보천보 전투에서 전사한 용장 김일성을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김성주가 대신하여 나선것을 누가 알았으랴?!

대회장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중키에 머리를 휘수건으로 지끈 동이고 한복 차림을 한 조만식이 연단에 나타났기 때문이였다. 근 반시간에 걸친 그의 연설은 순 민족주의적인 내용으로 흥만되였다.

이로서 군중 집회는 끝났고 소련군 사령부 정치부는 버룬 수잡에 착륙, 수잡된 버룬들은 군사령부를 어느정도 불안케 하였다. 그 다음날 김성주-김일성의 고향이라 알려진 만경대에서 주변을 베풀고 소련군 장령들이

다수 그에 초대되었었다. 그러나 주변에 참가한 소련 군 지도부와 조선인 지도자들의 마을속에는 《가짜》란 검은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가 정

간단하게나마 김성주의 가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성주는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 평면 남리라는 곳에서 김형직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형직은 1894년 생인데 강반석이라는 녀와 중매약혼을 하였는바, 형직이 14살 되던 해 반석이는 17살 나이였었다

형직이 교편을 잡고 이곳에서 일하다가 생활난으로 하여 전가족이 중국간도로 이주했다.

성주는 현지에서 중학을 중퇴하고 유력대에 가입하게 됐다. 성주의 모친은 1891년 4월에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에서 강돈욱 예수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두 오빠 진석이와 양욱, 그들은 다 예수교인이였었다. 특히 양욱이는 인민들속에서 예수교의 교리를 잘 해설 선전하고 예배를 능숙하게 지도하였기에. 목사의 절에까지 오르게 되였었다.

성주에게는 형권이라는 삼촌이 있었다. 당시 만평대라든 수수, 조, 콩 밖에 살지 못하는 메마른 고장이어서 그도 역시 빈궁한 생활을 하였었다

변종과 기아에 빠진 그는 대동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성주에게는 또 두 동생이 있었다. 철주는 형을 따라 유격대에서 일제와 투쟁하다가 일본군의 포위에 걸려 투항하고 말았다. 그는 1936년에 죽었다.

성주는 이사건으로 하여 《민생단》에 걸려 한동안 정신적 타격을 많이 받았었다.

마지막 동생 영주는 일본에 복무하여 하와이까지 갔다가 해방을 하와이에서 맞이하고 상해를 거쳐 평양에 돌아왔으나 내막은 좀 미미하다고 본다.

그가 돌아온후 김일성은 그를 소련 유학을 보냈다.

6.25 동란때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당중앙 위원회 조직 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정일이 출세하는 바람에 매장되고 말았다.

6.25 동란

해방된 북조선은 소련 기술자, 학자들의 방조에 의하여 경제, 문화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문화예술, 과학 분야들에서도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

인민군은 세계 민주진영의 혁명 주류에서는 아마 세계 제일 강대한 국가로 되었다 그것은 소련의 방조하에서만 될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후 이와 같은 성과는 김일성의 안심속에서 영웅주의, 출세주의, 야심과 모험주의가 노출되기 마련이었다.

1950년 3월 김일성은 스탈린을 방문. 바로 이 전쟁전의 비밀 회담에서 벌써 6.25 동란의 작전이 싹트기 시작되었던 것이다.

6.25 전쟁 작전계획은 민족보위성 작전국의 한방에서 약 1개월간 극비밀리에 작성되었는바, 상급 작전은 총참모장 강건, 포병사령관 김봉률, 그의 참모장 정학준, 공병국장 박갈남, 통신국장 리용인, 공군사령관 한일두, 해군 참모장 김원두, 병기국장 서용선, 후방국장 정복, 정찰국장 최원, 작전국장 유성철, 그의 부국장 윤상렬, 등의 직접적인 참가하에서 작성되었다.

소련 고문단 와실리예브 중장, 뵘스트니코브 소장 및 기타 장령들이 작전계획 작성에서 주동 역할을 하였다.

이 작전계획 작성을 위하여는 소독 전쟁경험이 풍부한 소련 고문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와실리예브 중장과 뵘스트니코브 소장이 구 고문단을 교체하였다,

구 고문단의 지도하에서 작성한 작전계획은 통과되지 못하고 뵘스트니코브 소장이 작성한 작전계획 총고문에 의하여 수정된후 통과되었다. 나 자신이 이 고문으로 된 작전계획을 번역하여 강건 참모장에게 주었다. 바로 이 작전계획이 실천에 옮겨졌다.

이상 작전계획의 실천을 앞두고 비밀을 보장할 목적으로 훈련 형식을 취하면서 38선에 아군부대들을 접결시켰다. 접결이 끝난다음에는 기동연습의 총결에 명령서를 무전으로 공개하여 전하였다.

아마 국방군 참모부는 북의 기만에 떨어졌으리라고
믿어진다

6.25 새벽 4시, 비행기, 탱크, 포병대, 함대의 엄
호하에 육군부대들이 38선을 무너뜨리고 남침 개시.

이작전계획의 기본약점은 미군이 손을사이드없이 불
의의 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견하고 군대의 예비를 조성하지 않은데 있다.

불의의 침공작전은 무엇에 기초했는가?

1. 불의의 공격 ;

2 서울 함락후 박헌명의 지도하에 남로당원 10만
명이 남한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로 되어 있었다.

3 지리산 유격대들의 적후에서의 세찬 공격작전
등에 기초했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며 경솔한 행동이었는가
하기는 전쟁이 시작되여 3일만에 서울은 함락되었으나
기대하는 인민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리산 유격대의
활동도 없었다. 서울의 함락은 단지 인민군의 력량우세와
불의의 침공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시기에 서울에 도
착했던 최용건은 국방군을 계속 추격할 지시는 주지 않고
제 1보조 지휘소 사령관인 김웅의 전투성과를 축하하여
중앙청에서 경축연을 베풀었다.

그때의 사태를 정확히 판단한 국방군은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한강의 천연적 계선을 리용하여 인민군의

남진을 저지시킬 결심을 하였다고 본다.

국방군 채병덕 참모총장이 6.25 동란의 정황을 심중히,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38선의 사단들을 교체하였고 사단들의 장비까지 바뀌었다고 한다.

만일 이상과 같은 해이성이 없었더라면 국방군의 저항은 더 강하였을것은 의심할바없다.

남침 3일만에 대전으로 긴급 피난한 이승만도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상황에 대해 이승만은 미국에 보고: 그후 6월 27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에 방조를 줄데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6월 29일 미군 맥아더 원수가 긴급날아와 수원에서 이승만과 맥아더간에 회담이 있었는데 미군은 《유엔》의 기치하에 조선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을 도하하여 7월 23-24 일에는 군사전략적 지점들인 광주, 남원, 목포를 점령, 9월에는 낙동강 계선의 여러 지점에서 도하하여 대구-부산간의 좁은 지역에 국방군을 몰아 넣었다. 인민군은 한달 동안에 남한의 90 퍼센트의 지역을 점령하였고 남선 인민들의 92 퍼센트를 자기의 관하에 넣었다.

유엔군.

1950년 6.25 동란의 첫날에 벌써 미국은 유엔의 분과 회의에서 소련과 중국의 참가없이 남북전쟁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영향하에 영국, 불란서, 폴란드야, 벨기야, 등이 군대를 파견, 미군은 유엔의 기발 밑에 남한에 면 소장을 파견하였는데 그의 지휘하에서 24개 사단이 전투에 투입되었다.

미군 항공대의 폭격 결과 많은 것이 파괴.

미국은 조선에 새 병력을 파견하여 반공적으로 넘어 가게 하였다. 미군은 평양과 서울, 남포, 해주, 평덕, 라남, 함흥, 흥남 및 기타 도시들과 농촌들을 폭격하여 재 태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북선 인민들은 진실로 **북침**으로 생각하고 김 일성을 지지하여 전쟁에 궤기하여 나섰다.

인민군은 후퇴하는 국방군을 계속 추격, 북조선 인민들은 후방에서도 전선을 도와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시련을 견디며 나갔다.

미군은 반공력에 넘어가면서 300척의 각종 군함과 800 여대의 비행기의 엄호하에 9월 15일에 5만명의 육군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인민군 장병들은 전례없는 위훈을 떨쳤으나 미군의

압도적인 공격에 하는 수 없이 후퇴를 시작하게 됐다. 후퇴는 전선이 차단된 적군의 후방에서 부대들과의 통신 연락도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전선사령부는 지휘 능력을 거의나 상실하다시피 되었다.

공병국장 박길남은 한개 부대를 거느리고 생사를 무릅쓰며 서울-평양간의 도로에 지뢰를 배설함으로써 적군의 진공을 저지하며 전선사령부의 후퇴를 성과있게 영호하였다.

그는 이런 위훈으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나 1958년에 김일성의 숙청에 맞아. 영웅칭호를 박탈당하고 소련으로 귀국, 박길남은 장기종환 끝에 1987년 3월 알마아타에서 세상을 떠났다.

국방군은 벌써 서울을 탈환하고 한강을 건너 예성을 넘어 무질서 하게 후퇴하는 인민군 부대들을 계속 추격하였다.

이처럼 준엄한 시기에 나는 전선 참모부에서 최고사령부로 호출되었다. 반으로 평양으로 올라면서 더러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시기에 최고사령부의 총참모장은 남일이었다. 남일은 소련 기술자로 북선에 파견된 사람들중 한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 부국장, 공화국 정부 교육성 부장으로 일하다가 전쟁이 계속되자 최고사령부에서 처음에는 부참모장으로, 다음에는 총참모장으로 등용되었다

전격전을 예견했던 김일성은 참모부를 긴급구성

하고 그의 참모장으로 낯일을 임명하였다.

그는 체계적 군사상식은 없었으나 고등지식 소유자로서 일반 문화가 높고 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의 직책을 유감없이 수행하였었다. 실로 대장의 군사칭호까지 받은 재능있는 장군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끈기에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많은 직
무에 아주 성실하고 헌신하였으며 정순하고 동지애가 깊
은 우리의 전우였다.

정전 달판이 시작되자 판문점에서 그는 조중측
수석 대표로서 외교가의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었다

천 안 문

우리는 중공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찾아가서 신
속한 방조를 요청할데 대한 김일성의 임무를 받고
북경에 도착, 필자는 박헌명 동지와 함께 임무를 맡
고 저녁으로 신의주에 도착했다. 신의주에서 북경
까지 우리 여행은 셋이었다. 신의주 인민위원회
위원장 유만동무 선유민과 (동역원으로) 함께 비행
기로 날아왔다.

박헌명 동지를 유만동무가 동역하게 되어 있었
는데 북경에서 리상조가 동역을 담당하게 되어

유민 동무는 귀국하게 된 것을 나에게 알려 주었다.

리상조 동무는 그때 상연 북상으로 북경에 무역대표로 가 있었다. 그 당시 그의 임무는 인민군의 동기피복 문제의 해결이었다.

우리는 모주석과의 접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새도록 소식이 없다가 래일 모주석과 접견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잠 자리에 누웠었는데 갑자기 모주석이 접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받고 천안문으로 떠났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중공당 정치국 성원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와 인사를 나누고 그들은 제각기 제자리에 가 앉았다, 좀 늦게 허리를 구부리고 잠평이를 짚은 주석 장군이 나타났다.

모두가 기립하였다. 그는 우리와 악수를 나누고 정해진 의자에 앉았다.

그때에야 모주석이 우리가 북경에 오게 된 사연을 말해 줄 것을 박헌영 동지에게 청하였다.

박헌영 동지는 김일성의 안부를 모주석에게 전하고 북경에 오게 된 사연을 근한시간에 걸쳐 설명하였다.

발언의 기본 내용은 국내외 정세에 대해 말한 다음 중공당과 중국정부에 군사적 방조를 요청한다는 김일성의 제의를 전달했다.

그 다음엔 내가 군사정세에 대하여 말하려 할 때
 모주석이 손을 들었는데 흥역 없이도 발언을 중지하라
 는 것임을 알수 있었다. 그는 흰천으로 가리워진 천
 으로 벽에 걸린 군용 지도를 열고 보여주었다. 나의 상관은
 화기에 찼다. 우리가 평양을 출발할 때에는 국방군이
 중화계선에 진출했었는데 그들은 벌써 평양을 점령
 하였고 동해안을 따라 진공하던 부대들은 일부 국경여
 까지 공격해 왔다. 부끄러웠다.

나는 결론적으로 비행기와 고사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는 모주석의 결론이 너무나
 정당하였다. 그는 중공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주연
 시기에 조선인민을 방조하기 위해 조선에 지원군을 파
 견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우리에게 알렸다

계속하여 그는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정치국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원군이 조선전쟁에 참가하는 그 군사
 정치적 의의를 조선인민에게 해설할 것과 간부 조절배치
 문제, 흥역원 문제, 후방공급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평덕회 장군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것과 후방은
 고강동지가 중추 동북정부 주석으로 있던 고강동지가 책임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두 동지들과 손을 잡으면 조선문제
 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 던 것이 아직도 나의 기억에 생생
 하다

모주석의 최종 발언은 전쟁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섯 손가락을 꼭 벌려 앞으로 내밀어 보이면서 적을 이렇게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는 전술적 문제를 건드렸다. 미군과 국방군을 각기 분리하여 적파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 큰 사람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한다리를 미군이라고 가장하고 다른다리를 국방군이라고 하자. 먼저 국방군을 치고 다음에 미군을 포위섬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군이 맥을 추지 못할것이라고 논하였다. 그는 한다리를 들고 다른다리로 똑똑 뛰면서 설명하였다. 이런 발언은 김일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나는 마오가 김을 비판하는것으로 알았다.

회담이 끝나자 모두가 기립하여 우리와 악수를 나누었다. 주문래 동지만이 문밖까지 나와서 우리를 전송하면서 김수상께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서 김봉특 상관을 박선영 외상에게 전하였다.

천안문을 떠난 우리는 고강, 평덕회와 함께 비행기로 평양에 날아왔다.

의견 차이.

중국 동지들은 그때 자기의 사무실이자. 저택인 것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평택회의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가 그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고강 동지의 집으로 갔다.

고강은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때 중공당 정치국에 조선 전쟁에 대한 의견이 존재했다는 말로부터 자기의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지가락을 들며 우리에게 조반을 권했다. 종내 결말을 짓지 못하여 이. 스말린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주은래 동지를 모스크바로 파견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노라고 모주석의 접견이 늦었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식사가 끝난후 고강은 자기의 드로잉지를 박헌영에게 주어서 그것을 읽을수 있게 되었다.

그의 발언 내용은 현정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곧 조선인민을 방조하여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의견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일되지 않았고 아직 해방군이 정규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조선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비록과 중국간의 전쟁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 두 의견이 대립되어 중공당 지도부에서는 해결을 짓지 못하여 스말린의 의견을 듣고서 주은래를 모스크바로 파견하게 되었다고 고강은 말했다

쓰딸린의 의견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인민을 방조하여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은 아직 대전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지원군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을 방조 지원할수 있다는 견해였다.

그리고 미국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대전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두전선에서 싸울수 없으며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쓰딸린의 준은 견해를 주은래에게 말했다고 한다.

쓰딸린의 견해를 듣고 주은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그에게 제기하였다고 한다.

1. 항공의 연료가 필연적으로 된다.

2. 고사특기에 대하여 쓰딸린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소련 3중 영웅 꼬세두브 (그당시 군항공 중장) 의 지휘하에 처음에는 1개 항공사단을 파견할것과 다음에는 항공군단과 고사포 독립연대들을 중국에 파견할것을 소련은 약속하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상 두가지 의견중 하나를 해결한 주은래는 예정 시간보다 늦은 때에 북경에 날아왔었다. 그래서 모주석이 우리 일행을 반듯게 접견하였다는 것이다.

고강은 아주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였다.

고강은 그시기 동북정부 주석이 되었으며 동북군구

사령이었다. 팽택회는 중국 서북 군사행정 주석이
자 중공당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다.

고강은 그후 모주석의 탄압의 희생자로 되었으며
팽택회도 그의 음명을 면치 못하였다

지 원 군

1950년 10월초에 김일성은 모주석에게 전문을
보냈다, 간단히 내용은 조선정세는 극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으므로 중국정부의 방조를 요청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을 받고 모주석은 고위급 지도
층의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두가지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결국 쓰딸린의 최종적 의견에
의하여 조선을 방조할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다.

1950년 10월 19일 저녁 8시경에 중국 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의 여러 지역을 넘어 조선전쟁에 참전하기시작.

- 유동무, 왜 저 지원군들에게 무기가 없소? -

백헌영이 물었다, 하얀 유리창으로 어둠을 뚫고
내다보니 사실 4-5명 중 총 한자루 비례였다.

그것조차 아리사끼형이었으며 군인마다 수류탄은
10여개씩 가진것이 눈에 띄었다.

- 북수상동지, 무기는 아마 뒤를따라 나오게 될
예정인가 봐요 - 그를 안심시켜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해방군이 이런 상태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상상외였다. 1950년 10월 20일 밤으로 북평을 다녀온 결과를 김일성에게 보고하였다.

평양회는 좋듯이 도착하여 지원군과 인민군의 협동작전에 관한 문제를 김일성과 오래 협의하였다.

김일성은 모주석의 제기대로 모든일을 처리해나갔다. 저를대는 조선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북조선 인민들은 다시 자기의 《혁명기지》를 찾을수 있었고 김일성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정 전

1950년 10월에 중국 지원군이 조선 전쟁에 참가 함으로 하여 전선은 고대고의 비례로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선이 북조선 측에 유리하게 되었다

새로 편성된 인민군 부대들과 지원군은 미군 부대들에 반공격을 가하여 1950년 12월 6일에는 평양을 다시찾고 38선을 지나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재차 탈환하였다

1951년 정월에는 근동 및 원동의 12개국,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참가하에 조선전쟁에 대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

그러나 미군은 집중 공격을 가하여 압력을 가하려 했으나 인민군과 지원군의 방어전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인민군의 전술은 방어-반공격전에서 적의 유생력량을 소멸하는 한편 가능한 지점에서 반공격의 타격을 가하는 기동전술을 썼다.

결과에 2월 11~13 일간에 강대한 타격을 가했다 2월 22-24 일간에는 지원군이 대 타격을 가하여 후퇴하는 미군과 국방군을 계속 추격하여 38선을 건너 서울에 접근하게 되었다.

미군은 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당했기 때문에 복선령토를 더 정령하려던 시도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전선은 고착되어 어느측에서도 승리할수 없게 되자 소련정부의 발기에 의해 소련 유엔 대표였던 말리코가 쌍방에 휴전을 제기하였다.

정전담판 회담은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북선측으로는 인민군 총참모장 남일 대장이 조중측 수석 대표로 회담에 참가하였으며 지원군측으로는 해방군정찰부참모장인 리극동이 참가하였다.

유엔의 기치하에 미군은 분계선 38선 1만 3천평방 킬로메터의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애를 썼다.

담판 과정에서도 미군과 국방군은 많은 비행기와 함대를 동원하여 수다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개성에서는 쌍방이 자기의 편에 유리한 방안을 가지고 주장하다나니 정전담판이 오랜 시일 걸렸다

미국과 국방군은 《춘기》, 《추기》 공세를 진행했으나 결국 어느쪽에서든지 승패가 없게 되자 판문점의 의견대로 2:2로 종결을 보게 됐다.

이승만은 북진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입장은 이미 휴전선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1953년 7월 27일야마 비로서 남북인민들은 그처럼 기대하던 휴전을 맞게 됐다.

독로강

조선로동당 제3차 전원회의는 1950.12.21-23일간에 거쳐 진행, 이 전원회의에서 《현정세와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를 김일성이 진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당, 정부간부들, 군대간부들의 무능력 과오, 범죄행위, 비겁성등이 비판되었다.

즉 김일, 최광, 리훈추, 김열 등 고위급 간부들이 비판대상으로 되었다.

김일성의 보고문은 김창만이 작성한 것이었다 김창만은 군사문제에 있어서 겨우 서물에 갠다운 하루 강아지에 불과한 인물이었는데 인민군 총참모부와 하등의 타협도 없이 전쟁행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보고에 판단해 놓았다. 초보적인 군사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의 보고는 가소롭게 들렸지만 김일성은 아주정식으로 남이 써준 보고를 멋쩍하게 읽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김일성의 《조선지식》을 감축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 비판을 받은 김일의 발언이 많어도 조선전쟁의 비극의 장막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조선전쟁은 특이비하고 참혹한 전쟁이었다.

도시와 농촌은 거의 전부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3년 동안 도굴, 반로굴에서 가열한 전시 생활을 겪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9백만의 살상자를 내고 한반도를 폐허로, 피바다로 만들었고 부모처자, 형제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1천만의 이산가족을 빚어낸 그 죄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반도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김일성이다. 이 전쟁으로 하여 민족을 위수로 세계공산동맹의 형성을 더욱 촉진시키지 않았던가.

사실에 있어서 이 전쟁이 쓰잘린, 모택동 모델의 공산주의자들의 내막, 면모를 더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들은 사실 세계공산주의운동을 망쳐먹었다.

김일성의 공명심, 모험주의가 아니었다면 한반도 인민은 미군의 대포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김일성이 아니었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런지도 모른다

어찌 이뿐이라! 김일성은 조선의 애국지사들과 간첩 동지를 비롯하여 김두봉 선생, 허가이흥지, 목정장군, 박일우 동지, 박헌영 동지, 박효삼 등 수천명의 동지들을 숙청해 버렸다

그는 자기의 일인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위험하다고 본 간부들에게 함부로 《종파분자》
《반동, 반당분자》의 딱지를 붙히 무조건 예심도, 재판도
없이 숙청해 버렸다.

바로 이 숙청장군이 자신 만만하여 마스-레닌의 학설
이 낡은 것이라며 자기의 《신철학》 소위 《주체론》을 세
상에 내놓고 세계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되어 버렸다.

모주석이 한때 신민주의를 국조논이 위치더니, 김
일성도 그를 모방하여 《주체》를 세우고 또 자기의 동생
앞에서 일체 거대 행사를 진행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15세기의 봉건령주인가, 절대군주인가?

《주체철학》을 내놓기된 리위는 다름이 아니라 김일성
자체가 독일어로 영어도 러시아도 모르기 때문에 고전 철학가
들의 저작을 읽을 수가 없지 않는가? 조선어판으로는 당시
마스-엥겔스-레닌 전집이 없는 형편이었다.

또 많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자기의 철학
을 내놓는다는 것이 문제로 되지도 않았다

이 사냥가의 일가에서 혁명가가 아닌 친척이 없다.
심지어는 김일성이 소련군에서 복무할 때 난 아를
유라 (정일) 까지 백두산 혁명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바롭스크 부근 초 왜트스크에서 난 아이를 백두산에서
놓았다고 위조하고는 백두산 등극의 일봉을 정일봉이라고
까지 선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작란인가?

애도

내가 《시상경도》를 받을 때 애국지이며 조선
인민군의 재능있는 장군인 류정수 동지가 사망하였다.
그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나의 전우였으며 동료였다.
나는 그의 경구 양에서 애석하게도 머리를 숙일수있는
《권리》를 받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훌륭한 지기의
아름다운 잃어버렸다. 위력시절에서나 지난 비도덕적
전쟁에서나 그는 지기의 근사기예와 용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공화국 병용 칭호까지 수여 받았다

지금도 멀어지지 않는다, 그가. 훌륭한 전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정수는 지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군건설에
남김없이 바쳤다. 애석하다, 류정수가 없나고 멀어지지
않아도 그의 너그러운 심장은 비록이나 조선의 진정한 애국
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나는 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소련 류공비학을 졸업
하고 귀국한후 김일성회관앞에 들때였다.

그래서 전우의 영별할 기회를 받았기에 나는 전우의
경구 양에서 머리를 숙일수 있었다.

사상검토.

몹시 쓰리고 아픈 마음! 필자는 오래 동안 망설이던 끝에 이 문장을 계속 쓰기로 했다. 그것은 내가 김일성의 마찰에 걸려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김일성이 「창의」한 사상검토란 무엇이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조선말 사전》(1973년판)에는 《사상검토》란 용어가 없다. 아마도 간단하고도 무서운 이 단어의 본질을 밝히기 몹시 두려워 한 것 같다.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이 《사상검토》는 근로인민을 기쁘게서 이직 남아 있는 자라 분자들을 진압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소리 같이 들린다.

그러나 이 사상검토는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발양시키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이래위 장항한 구조를 들고 그는 《사상검토》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이 사상검토의 휘오리 비람이 인간을 휩쓸고 다음에는 존재의 경비에서 숙청품이 나왔다. 김일성의 《사상검토》 몽룡이로는 주로 김창만이라 박장목 되어 있었다.

김창만은 북조선해방후 연안에서 나온 간부들중 한사람이다.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장평생과 함께 문화선전선대에서 함께 공작하였다.

해방된 북조선에 와서는. 시흥간부학교 교장에서. 당중앙위원의 부위원장의 직책에서 일했으며 6.25 동란 때에는 소장의 칭호를 받고 인민군 대령보충국장으로 일하다가 다시 당중앙위원회이 조종되어 공작한 김일성의 흥복이었다. 그도 김일성의 관망에 들어 희생된 자이다.

박창욱은 소련기술자들과 함께 북조선에 나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의 직책에서 한동안 김일성의 《사랑》을 받아오다가 결국 김창만의 신세가 되어 버렸다.

《사상검토》의 형식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련에서는 30년대에 야병놀은 《감청결》이라는 풍어항이 이, 쓰말린이 아주 깨끗하게 진행하였다.

중국에서 진행된 《사상검토》는 《문화혁명》이란 기발명에서 진행되었다.

북조선에서는 주권투쟁이 《사상검토》란 감투를 써서 놓고 김일성이 직접 지도하였다.

필자 자신은 이 사상검토에 걸려 만 주일동안고생, 기발문제는 김일성의 개인용비에 대한 것과, 6.25

동관에 대한 것이었다. 기타 리본 문제는 사명에서
의 가족주의, 정감식 시녀 방편이니, 사대주의니 하는
등 등의 요란한 언도였다.

김조걸과 나는 당에서 출당되었고 인민군에서 제대
되어 소련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추방당하기 전 피를 말리는 갖은 고초를 겪고 죽을
위험에까지 빠졌던 모든것을 기록한다면 이마
래 소설이 될것이다.

김일성의 《시상전도》는 여의나 잔인하고 혹독했
던지 김조걸과정에서 지냈던 사람들을 여의시켰는가.

김일성은 상기 악명 높은 《시상전도》-속칭을 세
심히 구상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했다는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하겠다. 그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일성
에게는 세가지 《흑색》병단이 작성되어 있었다.

첫 병단에는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고
제2 병단에는 무기한 징역형을 받을 사람들이 들어
있었고 제3 병단에는 소련으로 귀국 하려는 사람
들을 보내도 좋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필자는 이 제3 병단에 들어 있었다. 그 흉악한
비밀을 그때 어떻게 알수 있었으랴?!

다수 북선인민은 김일성이 저질러 놓은 전쟁에
충실히 참가 하였으며 진실로 자신을 천락으로부터

구워한다고 말았겠다.

두가지 실례를 들기로 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각부A상
으로 임명된 반 허기이 모해공작은 박창옥이 시작하였다.

그것은 허기이가 박창옥을 미숙한 열근으로, 경솔한
사람으로 허려한데 대한 보복이었다.

그때 박창옥은 허기이의 시점에서 앓은 결함들을
알일이 김일성에게 몰려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내까지
박창옥은 허기이를 김일성앞에서 풍상하기 위하여
《특별원고》를 작성해내는 꾀를 꾸며냈다.

상기 《특별원고》에는 김일성에 대한 찬가를
높이 불렀는데 한과 지혜를 이끼지 안팎다.

허기이는 이상 《특별원고》를 알라못해 붓을 놓고
박창옥을 쳐다보면서. - 그런데 일성 동무를 우리나라
에서 남여로소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찬양하는
수필을 쓸 필요가 안소? - 하고 지적하엿다 한다.

-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문구를
그어 놓으시오, 수정하겠습니라 - 하고 능청스레 말했다.

허기이는 아무런 의산도 없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문구를 그어놓고 원고를 돌려주었다 (허기이는 김일성을
보통 일성 동무라고 불렀다)

박창옥은 그원고를 가지고 가서 김일성에게 보냈다.

이 자립은 김일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에게는 허기이숙청 계획이 세워졌다, 후회시키었다. 그때에는 그를 옥죄할 능력이 없었다. 바로 그시기에 김일성은 그에게 라디오 방송국 출판사 조직, 선안지속지 공사, 등 실행할수 없는 사업을 위안했다.

1951년에 열렸던 제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조직문제와 조국통일 민족주의 전선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일성은 바로 이 회의에서 허기이의 관료주의, 채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모략책동은 허기이를 암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김두봉 선생의 운명도 그러했다. 동초에 정배를 보낸 김두봉 선생은 타살되었다, 조동당원들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시위하는 증거로 선생을 타살하였다

1955년 소련공산당 20차 대회가 소집진행되었다. 대회에서 니키타 흐루쇼프가 쓰갈렌의 개인숭배와 그 후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그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 후 북조선에서도 개인숭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김두봉, 최창익, 박창욱 기타 인사들의 모임에서 개인숭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창익은 소련 방문 중인 김일성이 귀국하면 이에대하여 김일성에게 제의할것을 박창욱에게 제기하였다

박창욱은 자기가 소련에서 왔기에 말하기가 거북하니 김주봉 선생께서 말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그의 의견의 좌시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김주봉 선생은 볼레 솔직하시고 깨끗한 분이어서 그에 대해 동의하였다. 김일성이 귀족하자 김주봉 선생은 개인숭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했으나 김일성은 그에 반대하였다.

이튿날 김일성은 중앙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귀족반보고를 하였다. 김일성의 목적은 개인숭배반대자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반대하여 윤공룡, 리필규, 서취, 김강이 출현하였는데 사태가 위험함을 감촉한 이상 4인조는 점심 휴회시간을 리용하여 리필규의 자동차에 앉아 중국에 도망치고 말았다. 이렇게 개인숭배 반대자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후 김주봉 선생은 학자이시며 애국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숙청 비람에 걸려 지방 농촌에서 소말구지를 물고다니다가 홀로 동당원들에게 맞아 죽었다.

김일성은 개인숭배 반대자들을 그들의 특성을 꼭꼭히 명찰히, 잔인하게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숭배가 북선 사회에서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괴물인가를 필자 자신도 몸소 체험한바 있다.

북선 공산당

북선 공산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북조선 공산당 분국을 조직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진실한 선봉대로 출현

북조선 공산당 창건에 있어서 허기이 동무의 역할을 용감히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는 각로에 핵심을 조성해야 했고 그 핵심들의 역할로 공산당을 북선에 창건.

김일성은 이 창립 대회에서 허기이 동무가 작성한 당조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읽었다. 이렇게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창설되었다.

1946년 8월에는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의 이름을 띠고 현재까지 존재해 오고 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해방 직후의 맑스-레닌주의형의 당이 아니라,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기초한 집단에 불과하다, 이 집단은 벌써 오래전부터 김일성의 리기주의적 목적에 리용된지도 오래라, 북선의 각지의 당 몇 죽기관, 공장기대소, 협동농장들과, 교육기관, 관대와 경비대 등 어디에서나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 연구실을 갖추고 있어서 그 연구실에서 그를 하나씩 같이 《받들고》 《말》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말로 한때 일본사회에서 천황 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김일성이 일본군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북반부를 지배하는지도 오래다. 그리고 북조선을 근대와. 보안대, 교화소와 수용소들로 차차 엄어매놓았다

김일성이 역사를 뒤조했고 한반도의 수백만 명을 살해했고 한반도를 원통 폐허로 만들었으며 지금도 김일성의 교화소와 강제수용소들에서 3백여만 명의 애국자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

밤은 길어도 아침은 오기 마련이다.

선량한 북조선 민간의 해방의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나는이 글에 김일성의 손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후손들이 이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은 진실한 애국지사들이며 열렬한 투사들이었다.
 세계 동포들이여 이름을 잊지 말라! 피바다에 잠겨 버린 이들을!

1990년 10월 - 1991년 정월 타슈켄트에서

유성철.

북조선에서 활동하다 숙청, 학살
당한 군사 간부들 ;

I 소련에서 파견된 군사간부들

1. 남일 대장
2. 최종학 소장
3. 정학준 중장
4. 최 원 소장
5. 김 원길 소장
6. 김 칠성 해군소장
7. 박 창옥 소장
8. 김 동철 소장
9. 리 공민 소장
10. 천 이 완 소장
11. 천 물 소장

II 한국에서 온 간부

1. 박민 소장

III 유격대원 중에서 처형당한 간부들.

1. 최용진 중장
2. 리권무 대장
3. 김창봉 대장
4. 석산 중장
5. 김익현 중장

6 김 광협 대장

IV 연안에서 온 처형당한 간부들.

- | | |
|----------------|-------|
| 1. 박 일 우 | 내무차수, |
| 2. 무 정 | 중 장 |
| 3. 김 용 | 상 장 |
| 4. 박 훈 일 | 중 장 |
| 5. 박 후 삼 | 소 장 |
| 6. 최 인 (왕 자 인) | 소 장 |
| 7. 리 익 성 | 소 장 |
| 8. 방 호 산 | 중 장. |
| 9. 장 평 산 | 중 장 |
| 10. 정 목 | 소 장 |
| 11. 리 리 | 소 장 |
| 12. 송 파 | 소 장 |
| 13. 왕 권 | 중 장 |

V 관악외역 의주에 망명한 간부들.

- | | | | |
|-----------|-----|-----------|-----|
| 1. 리 상 조 | 중 장 | 12. 리 훈 백 | 소 장 |
| 2. 강 상 호 | 중 장 | 13. 장 철 | 중 장 |
| 3. 유 성 철 | 중 장 | 14. 황 성 복 | 소 장 |
| 4. 김 일 | 소 장 | 15. 리 필 규 | 중 장 |
| 5. 박 길 남 | 소 장 | 16. 천 치 여 | 소 장 |
| 7. 최 훈 덕 | 중 장 | 17. 김 광 | 소 장 |
| 8. 김 재 욱 | 중 장 | 18. 서 휘 | 소 장 |
| 9. 윤 성 복 | 소 장 | | |
| 10. 김 찬 | 소 장 | | |
| 11. 유 성 결 | 중 장 | | |

기상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간부들이 이명단에
들어 있다.

적지 많은 전우들은 생명을 잃어버려 기록하지 못하니
용서하라! 그리고 이상 이하 청호의 준관들의 수천명이
육성의 교두머에서 희생되었다.

이들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파반라의 장본인의 희생자들의 후손들은 선조를
죽여 버린 형리를 잊지 말라!

매 짐 말

유성철 선생은 자기의 희생기를 1991년에 고려일보신문
에 발표하였다. 그이가 희생기를 쓰려는 동기는 우즈베키스탄에 귀환
하자 써서 구상을 잡아 놓았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언하여
오랫동안 끌고 있었다. 그러던중 결심에 이른것은 1990
년에 김일성의 생일에 즈음하여 북한정복의 공식적 초
청을 받고 북한에 가 단녀온 후이라고 언정할수 있다.

유선생은 소련에 귀환하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애정
드린 북한에 갔다. 북한에 가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꼭
만나보려고 알리고 간 사람들은 한명도 만날수 없었다. 전북과
세상을 애석하게 생이 빌려하였다. 그렇게도 많은 아는 동무들
중 리화노장-전 항공사령부 비행 부사령관, 김용원 중장, 전
김책 정치군관학교 군사부교장, 최후 동부전선 참모장, 만나본
당시 전승방물관 관장 두 동무를 만나 몇가지 문제들을 해명
하고, 김정일의 이름으로 보내온 강령기를 선물받은후 자기 몸
괴로움을 활하고 체류기한 중도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후 유선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희생기를 끝내었다.

선생의 희생기를 위에서 읽어보신 이들을 감동하였으리라고 짐작하나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선생은 재물에서 그렇게 많은 사변들과 사실들을 쓰면서 자기에게 대한 사실은 아주 겸손하게 적게 기록하였다.

유성철 선생은 군대내에서 사상검토 운동이 시작되어 벌써 여러 소련 출신 간부들이 감직, 철직, 제대 처단 당하는 때에도 그 사상검토 불명이가 자기 잔등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만은 건드리지 않으리라고 자신만만하게 믿었다. 그것은 자기는 김일성이와 함께 88 여단에서 복무하였고, 둘째로, 군대 내에 88 여단에서 복무한 동지들이 많지만 유선생은 김일성이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었다. 유선생은 기본 임무 수행 외에도 김일성의 가장 신임있는 번역원으로 인정받았다. 때문에, 유성철 선생은 선내에 들어와서도 아주 높은 책임적 지위에서 오래동안 계속 일하시었다. 때문에 소련출신 간부들이 다 축출되어도 자기만은 건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믿었다. 김일성은 군대내 고급간부들을 사상검토 함정에 차넣고 그 함정에서 하나 하나씩 속가내여 철직, 제대 할 때에는 반듯이 최고사령부 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자기 임의하에서 그 한행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런 회의에서는 반듯이 같은 파끼리 서로 비판하여야 그 군사위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김일성은 아주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기위하여서는, 군대내 사상검토 진행 최고 책임자, 당중앙위원회 명의를 김항만이 유일전통어 다음에 진행될 군사위원회(군사재판)를 준비하였던바, 그 준비에서는 누구, 누구 문제를 호의할것과 또 누구-누구가 그 엄격한 토론에 참가할것을 미리 준비시키곤 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간부 문제가 제기 될 때에는 반듯이 유성철 중장과 정학을 중장이 제일 선함 손을들고 어뢰서 위임받은 토론을

하였다. "항공사령부 허위보고사건" 관련하여 56.
조선출신 군사위원 김대건 소장, 김원길 소장을 철직 제대 할 때
와, 핀투리스츠 사건으로 연하여 서북조선 군사위원 김일소장과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이 철직 제대 될 때에도, 또 그 외에도 김철우,
천홍, 동지들이 철직 제대될 시에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김일성의
전술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제를 규위"하는 것은, 박항욱을
이용하여 허가이를 잡고, 또 다른 조선파 사람으로 이용하여 박항
욱을 잡고 하였다. 정학준 공장은 심복자로 사삼검호 운동의
돌격대원으로 이용당하던 것이 비발제상과 간부들과 같이 대
동강에 의역감으로 나갔다가 그들에게 대낮고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유선생 자신이 수차 이야기하시었다. 이 사실이 있으면
유선생 선생의 김일성에 대한 믿음성은 우뚝로 돌아가고, 자
기 생명도 위태하다는 것을 감촉하게 되었다. 유선생은 이
대 논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조선국적
회복과 조선에 귀국허가에 대한 청원을 써서 조선 대사관
을 통하여 조선 최고소베는 상임원장께 제출하였다. 물건우
속이란 일정한 기일을 요구하든바 적어도 3-4 개월이 걸려야
되잖아 나오든 없었다. 이렇게 많을 걸리니, 조선의 비관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벌써 어느덧 사삼검호 불명어가 유선생
게로 떨어지게 되었다. 작전국 당 단테에서 사삼검호가 시작
되자 유선생에게 대한 불평분자들은 이를 악물고 있는 일 없는 일
할꾸레리에 붙어가지고 유선생에게 대공격을 하였다. 그것은 조
련파에 한하여서 한가지 딱지를 붙이는 - 관료주의, 하대주의
조선파 지방주의에다 안일복화까지 합하여 가지고 근오개월
이나 골수를 뽑아내다가 밧이막 끝에는 도덕적 품성이 나뉘다니
일찍 보육과 중상까지 하다가 군사위원회에서 철직 제대 명령
을 받은 허복 농촌에 내리다 재고양을 받으려던 것이었다. 아래로
내려가면 꼭 죽는다는 것을 알고있는 유선생은 그래도 조국의 번영을 위한

외업에서 17년동안 생사를 같이한 "연립의 아버지"에게 말의 57.
막으로 비는 청원을 물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별의 시간은 꽤 많이 지나 갔으나 여기서도, 저기서도 회답은
없으나 밀자리에서 곱기우고 집을내 놓고 당장 떠나라는 지키우
는 바람에 하느수없이 서평양 보충강역에 있는 빈호출막에
이루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아이들 3명, 장모, 자기 부부간 합
6명 식구는 온 4개월간 고생하였다. 그것은 살고있는 호출막이
잠자리 불편하다던가, 양식이 부족하여 반쯤 굶어 사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자기 생명 유리에 대한 믿음성이 전혀
없어, 때시간 때초동안 어느때가 나 잡으려오든가 하는 문제였다.
밤이면 먼방에서라도 작동차 발동기 소리만 들리면, 때 번서자
언제 나는 다로구나가 하면서 밤이면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이렇게 연립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밤을 보내고 날이 밝으면
북편을 시키 소련 대사관에 보내어 귀국문제 조속한 해결과
생명보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나무나라에 주재하여
있는 대사관에서 모스크바에 전화나, 전신으로 문의 할뿐이고, 생명
보호문제는 할수없다고 대답하면서 의무성에 공식 문외는 하겠다
고 하였다. 사실 대사관 영사는 의무성 영사복에 전화를
걸어 유성철 선생의 귀국문제를 소련북쪽에서 해결 중이
기에 그를 빨리 유형지에 보내지 말라니, 그의 건강에 대하
여 가능한 방조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드 그 당시
까지는, 그러한 전화라도 소련 대사관에서 북한 의무성에
하여 문건이 여간한 암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밤낮
쏟음 밤아를 쟁이며 무사-무사한 생활을 4개월 이상하던
중 하루는 영목 사부님이 소련 대사관에 갔다가 두분
의 초청장을 가져왔다. 그에 따라 유성철 선생, 김용우
사모님은 세아이를 데리고 장모까지 6명은 소련으로
오게 되었다.

유성철 선생은 자기의 회고록에서 류경수 공장에 대하여 그의 58
장예식에 참가하게 된 사실을 깊은 애정으로 기록하였다. 사실 그들 두
분은 아주 다정하였다. 사실 류경수 공장은 훌륭한 명장이었으며, 인
간적으로 동우적으로 위선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유성철은 류경수
공장의 죽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또 그 진실을 알누르 없었다. 그 선생의 장예식에서는 그가
부관의 오발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진실
로 듣지 않았다. 모로다 말하기를 "부관이 자기 장관을 어떻게 업
호면 자기용으로 그를 총살하는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끝이 듣지 않았다. 그러던 차 약 12개월 여 후 전하여
온 공식 보도가 발표되었던바, 거기에는 "부관이 반당 중파분과
엮기 때문에 고이적으로 자기 장관을 총살하였다"고 하면서 그
를 겁겨 처형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후유리 판이 뒤엎어진 다음
사람들은 그것이 위임받은 일이라든지 알게 되었다. 천하에 부관이
무슨 반당 중파분과란 말인가? 참 거짓말을 하여도 한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류장군을 암살한다음 그의 문안 동리 외딴 류훈희도 김일성
의 분회에게서 난달 경희의 다른남자와의 이성관계를 안다한
여 그도 세상에서 증거를 감추게 하였다.

또 한가지 예베노드를 유성철 선생이 아리기한 것이 있다. 이것은
리익선 노장을, 자기가 아직 작전국장으로서 있을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산장하였다"고 하였다. 리익선은 공중에서
발발 재산 활동시기에 김일성이 보다 지위가 훨씬 높아, 지대장
지위에 가까이 있었으나, 김일성은 권대장, 식단장급에 계셨다고
하면서 말하셨다. 하루는 리익선씨가 몇몇 간부들이 불
안 좌석에서 사상검토 사업에 대하여 불만을 품으면서 "자기
가 누구였기에 (김일성에 대하여) 수단한 간부들은 처단한단
말인가? 이것이 무슨 공산당원만까지 그 자식들이 처단해야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가 그것을 김일성에게 그대로 밀고하였
 었다. 이 말을 들은 김일성은 아무분개하여 하면서 자기 가장 신
 부자 김을설이를 (그는 당시 평양시 경무장 - 즉 김일성의 현병대대장)
 불러 놓고 파제를 꾸리, 지금 당장 리익선을 체포하여 가지고, 서평양
 공동묘지 주변에 나가, 야간을 리용하여 산장하여 치우라고 하였다.
 을설이는 시키는대로 시경무 대대원 중에서 가장 신임있는 한개
 분대를 파동하여 공동묘지에 응영이를 파놓은 다음 벌써 낮에
 체포하여 경무부에 간아두었던 리익선 장군을 밤에 끌고 나가
 산장하였다. 리익선 장군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는 "진실한
 공산당원으로 너의 손에 의하여 죽지만, 너의 손이 좀달아
 알지 아닐것이다" 하였다. 이 말을 듣자 을설이는 삼으로 익선
 장군의 머리를 가서 죽게하였다*고 하였다. 이 역사는 당시
 소련 대사로 계시던 리상조 선생께서 여러 동무들이 들었다

유선철 선생은 1959년에 모스크바에 가족과 함께 도착한
 후 민족보위성 간부국에서 연금을 제정받고 친척들이 살고있는
 다슈키노 시로 오게되었다 파견된 도시에 도착하여 무료로
 사택을 배정받고 선생의 취직문제, 자식들의 학교에 입학문제
 부인의 취직문제 까지 해결받았다. 선생은 연금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 출근하여 시민간 항공기업소에서 자동차 운수부장으로
 장기간 계시다가 1985년에 취직하시곤 완전히 연금생활
 에 너리가면서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유선생은 북한으로 불어 소련에 귀국한 유가족 후원회 부위원
 장으로, 조국통일 구국 민주전선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생애
 의 빛어막 날까지 제쳤다.

유선생은 "한국 해외동포 모국방문 후원회"의 초청을 받고 한국을
 2차 방문 하였으며, 미국 해외동포들의 초청에 의하여 동북인
 하여 미국의 여러 중요도시들을 방문 하였으며, 북한 정부의 공

식 초침을 받고 1990년에 김일성의 탄생 78주년에 즈음하여 조선에 귀국한후 처음이자 '맞이막'으로 그렇게 예태우선 평양도 방문하였으나, 방문 도중 병환으로 인하여 기한전에 집으로 귀환하였다.

유선생은 조국의 해방과 그의 변명을 위하여 자기 청춘을 다 바치며, 아주 젊은 시절 시기에 가장 어려운 업무 - 정찰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국앞에서 이 영예로운 업무 수행시 흔히는 사람 "연기척" 이라고는 전혀 없는 산간에서 자기를 둘러싼 어두운 환경으로 살고 별다른 "한 하늘은 천정으로 삼으면서 때로는 우물등안 식 지어는 열개월 이상씩 집에 들리 못하고, 넓은 음식어란 먹기는 고사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노획에서 열매나 풀뿌리를 뜯어 먹고 목숨을 유지하고 전후 업무를 수행하여 자기 상부에 필요한 재료를 발송하였다. 유선생의 이러한 고생에 대하여 그의 동반자, 역시 빨간지산 출신 김성국이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약 한 달 동안 넓은 밥과 죽은 먹지 못하니 두사람은 일주일 동안이나 뒤볼수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산속에서 하는 수 없어 두사람은 나무꼬쟁이를 가지고 호상뒤를 파주어 통행 할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이렇게 조국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선을 넘어 조국에 들어선 유선생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에서 살지 못하고 조선에 추방되어 맞이막 시기에는 결국 "변치"증에 의하여 식리가 막 떨어지니 1995년 1월 10일에 하슈켄트 시에서 서거하였다. 유선생 선생의 사상후 현재 그의 아들 삼형제와 딸 한명, 김용옥 사모님이 다 슈켄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손주 중 손녀 하나를 현재 모스크바 코모소프 국립공공대학 경제학부 제 2학년에서 수업하고 있다.

강학봉. 1995. 10. 25.